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형용사 과거 시제 오류 연구

王清棟

國立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助理教授

초록

한국어는 첨가어로서 문법적 형태소가 용언에 붙어 시제를 구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시제는 발화시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범주를 가리킨다. 시제의 성격이 지시성을 띠었다고 함은 발화시를 중심으로 시간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만 있고 문법적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언어도 있다. 바로 중국어가 여기에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 안에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의 발생 시점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마련이다. 이렇듯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문법범주로서의 시제 체계가 없이 용언의 시간상황을 시간명사나 시간부사로 반영한다.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표현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시제 사용 오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중에서도 과거 시제 체계에 초점을 두고 두 언어간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로 과거의 사건 또는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시제 사용에 대한 문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권 학습자는 형용사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직관이 가장 부족하였다. 형용사 과거 시제 사용 직관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방안으로 한국어 시간어 정보 제공을 제시하였으며, 역시 테스트를 통해 시간어 정보 제공이 학습자의 형용사 과거 시제 오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과거시제 교육 방안으로 한국어 시간어 정보 제시를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간어 표지 담화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육, 형용사, 과거시제, 교육방안

The Teaching Methods of Korean Adjective Past Tenses for Chinese Native Speakers

CHING-TUNG W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 and Literature.
N.U.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find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past tenses, especially the adjective past tenses in Korean, to Chinese learners. Because of the lack of tense markers in Chinese,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s to master the past tense in Korean. Verbal past tenses are easier to distinguish between present tenses since students can judge whether an action has happened or not; however, for the adjective past tenses, it is different. The difficulties are not only in the expression of the past tense or present tense in Chinese or Korean, but also due to the different cognitive ways of judging an event.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았-’ that displays the past in Korean and the auxiliary words ‘了’ that represent the past in Chinese. through this procedure, we obtain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았-’ in Korean and ‘了’ in Chinese. The second step conducted Chinese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 survey by 40 questions. Twenty of these items have a temporal noun added in. The other twenties did not. The additions are to check the variations in responses due to the addition of a temporal noun.

The survey revealed that adding temporal nouns in Korean sentences can help native Chinese classify what tense a Korean sentence is. Furthermore, it can also help the native Chinese Korean learners to use Korean tenses properly.

Keywords:

Korean Language, Korean education, adjectives, past tense, teaching methods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형용사 과거 시제 오류 연구

1. 서론

한국어에서 시제란,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를 문법적 수단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즉 학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시제 언어로서 과거-현재-미래의 3분 체계를 갖는다고 한다(남기심·고영근, 2011).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요소로서 ‘-았/었/였’(발화시 이전), ‘-ㄴ/는/Ø’(발화시), ‘-겠/-을 것이’(발화시 이후)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필수적 혹은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언어적 수단에는 어휘적 수단과 문법적 수단이 있다. 이 가운데 문법적 수단에 의한 것만을 시제라고 한다. ‘아까, 지난 주에, 어제’등은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지시적 어휘적 수단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철수는 마지막으로 성공하였다’에서 ‘-었’은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 즉 시제 표지이다.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은 그 수가 매우 많고 열린 집합을 이룬다. 따라서 화자가 사태의 발생 시점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자 하면 이들 표현 중 일부를 적절히 골라서 쓰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은 하나의 언어 내에서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만 있고 문법적 수단은 없는 언어도 있다. 바로 중국어가 여기에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언어를 비시제 언어라고 한다. 즉 이러한 비시제 언어에서 문장 안에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의 발생 시점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마련이다. 또한 비시제 언어에서는 과거 사태를 나타낼 때, 그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 발화시 이전임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중국어는 이러한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개의 경우 청자는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사태의 발생 시점을 추론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어화자는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충분한 맥락적 단어를 제공하거나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맥락의 단서가 부족하거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 지식이 적어 청자가 그런 추론을 확실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어는 첨가어로서 문법적 형태소가 용언에 붙어 시제를 구현하게 된다. 즉 과거와 비과거의 구별이

‘-았/었/였’과 ‘-ㄴ/는/Ø’의 대립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표시된다. 반면에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문법범주로서의 시제 체계 없이 용언의 시간상황을 시간명사나 시간부사로 반영한다.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표현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시제 사용 오류 비중이 높다(제몽요, 2013 ; 호선희, 2012 ; 왕방(2007)의 다수).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시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상태나 진행을 나타내는 형용사 과거 시제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시제 사용 직관을 파악하는 문법성 테스트를 통해 한국어 형용사 과거시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한국어 형용사 과거시제 교육방안으로 한국어 시간어 정보 제공을 제시하며, 그 교육 효과도 살피고자 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거 시제 체계

Comrie(1976:3)는 시제(Tense)를 문법화된 시간적 위치로 일반적으로 직시적 범주로 본 반면, 상(Aspect)은 상황의 시간적 구성을 보는 서로 다른 방법들로 비직시적 범주라고 하였다. 그런데 세계의 언어들에 나타나는 시제와 상은 그 실현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범주라고 할 수 있다(송경안 2008:9).

최현배(1937)는 한국어 시제의 2원적인 구성을 도입하여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시제 (참때매김)와 가상시제(거짓때매김)로 나누고 ‘-더-’의 유무에 따라 직접시제(바 로 때매김)와 회상시제(도 로생각 때매김)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으며 동사, 형 용사, 지정사로 나누어 시제처리를 하였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3시제 체계를 따랐으며 완료도 3시제에 포함시켰다. 진행상은 ‘-고 있-’과 ‘-ㄴ(는)다’로 표시되고, 완료상은 과거 표시와 같은 꼴의 ‘-었-’에 의해 표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렬모(1946)는 모두 12개의 시제 형태가 있다고 하면서 ‘-는다’는 현재진행, ‘-었다’는 완료, ‘-었었다’는 과거완료, ‘-겠다’는 미래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구조문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제와 상의 분리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시· 상 복합설이 주류를 이뤘다. 이승녕(1961)은 ‘-고 있-’은 진행상, 끝남의 의미를 가지는 ‘-었-, -ㄴ-’은 완료 상, ‘-더-’는 지난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박창해(1964)는 한국어의 시제 는 단지 현재 시제 한 가지만 있을 뿐이고 ‘-았/었-’이나 ‘-겠-’은 각각 완료와 추정을 나타내는 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었었-’은 완

료의 완료, ‘-었겠-’은 완 료추정, ‘-겠었-’은 추정완료라고 하였다. 이종철(1964)에서는 전통문법에서 시제로 처리되어 오던 형태소들을 동작상으로 해석하여 과거 시제의 형태소로 보았던 ‘-었-’을 완료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동일한 언어 현상이 방법론에 따라 시제로도 해석될 수 있고 동작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었-’은 시제로는 과거이면서 동작상으로는 ‘완료’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생성의미론의 영향을 받아 시제를 통사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시제와 상을 복합 범주로 보는 견해가 활발하였다. 김석득(1974)은 한국어의 시제 형태 소들이 시제 혹은 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시제와 상이 미분화된 혼합체라고 하였다. 서정수(1976)에서는 시상 형태는 시제나 상의 범주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상적 의미를 같이 나타내므로, 시제나 상이 아닌 시상(tense-aspect) 범주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지량(1982)은 ‘-었-’은 완결, 과거, 과거완료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 의미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기심(1972)에서 ‘-었-’은 완료, ‘-었었-’은 단속, ‘-겠-’은 미확인법, ‘-더-’는 회상법으로서 문장 종결형에 있어서 ‘-었-’이나 ‘-겠-’이 시간적으로 과거 혹은 미래를 보이기도 하는 것은 ‘완료’나 ‘미확인’의 상이 갖는 잉여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어의 시제는 시제와 상을 독립적으로 보는 견해와 과거-현재-미래의 삼분법 또는 과거-비과거의 이분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은 시제와 동작상을 함께 다루었는데, 발화시를 중심으로 앞뒤에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범주로 시제를 설명하고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었으며, 동작상은 완료, 진행, 예정과 같은 동작의 양상이 일정한 상태로 표시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였다¹. 최동주(1998:239)는 한국어의 시제를 ‘-었-’의 유무를 기준으로 과거와 비과거의 2 분법적 체계로 보고 있으나, 최근 박진호(2011:296-297)는 가족담음에 의한 전형성의 정도 차이로 과거, 현재, 미래의 3 분법으로 보고 있다². 즉 ‘-었-’, ‘-은/는-’, ‘-겠-’, ‘-ㄴ 것이다-’등으로 표현되며 관형형에서는 ‘-ㄴ’, ‘-는’, ‘-ㄴ’등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시제 체계는 어떠한가? 중국어에서 시제는 ‘了(le)’, ‘過(guò)’, ‘將(jiāng)’, ‘要(yào)’, ‘会(huì)’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중국어는 ‘了’(완료상), ‘過’(경험상), ‘在’(진행상) 등의 상 표시가 발달한 언어로 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법 표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 또한 중국어의 시제 구조는 중국어 자체의 언어 특징을 고려

1 남기심·고영근(2014:313)

2 한국어 시제 분류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었-’을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형태소로 보고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402).

3 黎錦熙(1924)는 영어 문법을 기초로 하여 중국어는 ‘時間副詞’와 ‘助動詞’를 통해서 동사의 ‘時制’ 변화를 표현 한다고 하며 중국어의 시제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와 ‘不定시제’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高名凱(1948)에 서는 중국어의 상을 ‘體’라고 부르고

하여 ‘어휘-문법 범주’를 정의하면서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입체적인 구조로 이뤄진다고 보았다(송화연, 2002).

먼저 과거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인데, 한국어에서는 주로 선어말어미 ‘-았/었/였-’이 용언어간에 결합되어 표현되는 문법 개념이다⁴.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예문을 참조한다.

(가) ‘-았-’의 예문

㉠ 나는 커피를 마셨다.

㉡ 나는 커피를 마신다.

㉢ 다리가 아팠다.

㉣ 다리가 아프다.

예를 들어 (1)에서 ㉠ ‘커피를 마신 일’은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 시간에 동작이 완료된 것을 나타내는 반면, ㉡의 경우에는 발화 시점과 동일한 시간에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의 예문에서 다리가 아팠다는 상황이 발화시 이전에 완료된 일임을 나타내며 ㉣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상태가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았, 었’의 기능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과거사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형용사의 경우 완료성의 자질을 내포함에 따라 역시 시제 요소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는 완료상, 경험상, 진행상, 지속상, 개시상 등의 다양한 상 표지들이 있는데, 이들 중 한국어 과거시제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완료상 표지 ‘了(le)’의 용법적 특성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나) ‘了’의 예문

a. 他 去 了 美國。

b. *上星期 天氣 冷 了。

그-가다-완료-미국

지난 주-날씨-춥다-완료

그는 베이징에 갔다.

지난 주 날씨가 추웠다.

중국어의 ‘了’는 (2a)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 표지로 보려는 시도도 있으나, (2b)에서는 ‘지난주’라는 시간 부사가 있어 과거임을 나타내나 ‘춥다’라는 형용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며⁵

‘進行體나 綿延體, 完成體나 完全體, 結果體, 起動體, 疊動體, 加強體’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중국어에서 동사는 시간 표현에 대한 문법 형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에 시제 범주가 있다는 관점을 반대하였다.

4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과거시제로 볼지, 상으로 볼지 또는 복합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지 등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 ‘-았, 었, 였-’의 기능을 과거시제로 보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해 본다.

5 이지혜(2009:19)

그 뒤에 쓰인 ‘了’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형태소⁶라기 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감정 등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에 해당된다. 즉 중국어에서 ‘了’는 의지에 의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활동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며 의지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 동사(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는 완료상 표지이다. 이는 중국어의 부정부사인 ‘沒’와는 한 문장안에서 같이 쓰일 수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陳俊光 2008:185).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는 시제 중심 언어로서 시제의 문법형태소 특히 과거를 표현하는 ‘-었-’이 발달하여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상 중심의 언어로서 시제가 없고 특히 ‘了’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형태소이다. 또한 중국어에서 동사는 형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 어휘만⁷을 사용해서 동사의 형태변화 없이 과거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 중국어의 과거 상태 표현 예문

㉔ 그녀는 (어제) 매우 불쾌했다.

㉕ 她 昨天 很 不 愉快。

그녀-어제-매우-않다-기쁘다

한국어의 경우 (3)의 ㉔와 같이 “같이”라는 시간 부사가 없이도 ‘-었-’을 통해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어는 (3)의 ㉕와 같이 ‘愉快’(기쁘다)과 같은 상태 동사(형용사)는 ‘昨天’(어제)과 같은 시간부사를 통해 과거를 나타내며 별도의 시제형태소나 ‘了’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거 시제 표현의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오류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데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밝힌 것처럼 ‘-었-’과 유사한 중국어 ‘了’의 대조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시간성(Temporality)에 대한 표현에서 언어유형론적으로 한국어는 시제 중심(Tense Prominent) 언어이지만 중국어는 무시제(Tenseless) 언어로 분류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었-’은 시제와 상이 함께 존재하는 한국어에서의 시제 표지인 반면 ‘了’

6 중국어에서는 ‘了(le)’가 문장에서 나타난 위치와 의미에 따라 ‘了₁ (le)’과 ‘了₂ (le)’로 구분한다. ‘了₁ (le)’는 동사 뒤나, 목적어 뒤에 쓰이기도 하며, 了₂ (le)’는 문장 끝에서 사용되는데, 이때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 어기조사로 구분한다(王芳 2012:21).

7 시간 명사의 예로 “昨天(어제), 前天(그저께), 大前天(그끄저께), 上週(지난 주), 上個月(지난 달)” 등이 있다.

는 상만 표현되는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 표지라는 위치를 갖는다.

이렇게 두 언어의 의미 차이를 넘어 시제와 상 체계와 관련된 차이가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과정에서 오류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인 중국어와 한국어와의 과거 시제 표현의 차이로 인한 한국어 형용사 과거 시제 습득이 용이하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국어로 의한 언어간 영향에 따른 문제점에서 기인한 형용사 과거시제 ‘-았/었/였’의 선어말 어미 사용 양상(직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과거 시제 문법성 테스트 내용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상태성의 의미자질로 인해 분명한 시간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형용사 시제 사용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문법성 테스트를 적용하여 형용사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직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형용사 과거 시제 교육 방안으로 ‘시간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시제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상을 구분하려는 견해와 통합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제에 초점을 둔다. 또한 문법요소로서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았/었/였)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먼저 한국어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문법성을 살피기 위해 대만K대학교 한국어 전공자 2학년 17명과 4학년 16명을 대상으로 선다형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는 모두 두 단계의 설문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연구의 편의상 설문 1, 설문 2로 명한다. 자세한 테스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설문 1: 시간어가 제시되지 않은 선다형 테스트

테스트 문항은 총 40개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동사 현재형을 정답으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 10개, 동사 과거형을 정답으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 10개, 그리고 형용사 현재형을 정답으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 10개, 형용사 과거형을 정답으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 10개를 1번~40번까지 무작위로 혼합하여 제시하였다.

<설문 1> 선다형 문항 예

■ 請選出適當的結合

학년	이름	동/현재 오류	동/과거 오류	형/현재 오류	형/과거 오류

1.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전에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일로 서로 _____.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 ① 싸워요 ② 싸웠어요

2.가: 진영 씨,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나: 저는 뭐든지 다 잘 ____.

- ① 먹어요 ② 먹었어요

3.가: 제가 방을 깨끗이 ____.

나: 고마워요. 그래서 방이 깨끗해졌군요.

- ① 청소합니다 ② 청소했습니다

~~~~~  
17.가: 새 집 거주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 네. 근처에 지하철과 버스정류장도 있고, 슈퍼마켓까지 걸어서 5 분 밖에 안 걸려서 참 \_\_\_\_.

- ① 편해요                      ② 편했어요

18.가: 우리 내일 오후 5 시에 약속 있는 거 알죠?

나: 저는 이렇게 말로 하면 \_\_\_\_\_. 그러니까 미안한데 여기에 써 줄래요?

- ① 잊어버려요                ② 잊어버렸어요

19.가: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떨려요.

나: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_\_\_\_.

- ① 기다려요                      ② 기다렸어요
- ~~~~~

26.가: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지 학생들이 계속 시계를 \_\_\_\_.

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 ① 쳐다봐요.                      ② 쳐다봤어요

27.가: 수영 씨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정말 부럽네요.

나: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젊어지는 것 \_\_\_\_.

①같아요                      ②같았어요

28.가: 교통사고 현장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나: 네, 서로 구해 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정신이 \_\_\_\_.

①없어요                      ②없었어요

~~~~~

38.가: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도 웃음이 나와요?

나: 네, 저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_____.

①좋아요 ②좋았어요.

39.가: 손님, 그건 어제 다 팔렸어요. 이걸로 하시겠어요?

나: 아니요. 그건 너무 _____. 좀 더 생각해 볼게요.

①비싸요 ②비쌌어요

40.가: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아닙니다. 만나서 정말 ____.

① 반갑습니다 ②반가웠습니다

~~~~~

## 2) 설문 2: 시간어가 제시된 선다형 테스트

테스트 문항은 총 20 개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내 적절한 위치에 시간어를 첨가해주었다. 문항 내용은 형용사 현재를 정답으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 10 개와 형용사 과거를 정답으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 10 개를 무작위로 섞어 1 번~20 번까지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어휘는 동사 10 개, 형용사 10 개로 총 20 개의 어휘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어휘 목록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실험에 사용된 어휘 목록

| 품사  | 어휘 목록                                       |
|-----|---------------------------------------------|
| 동사  | 싸우다/먹다/청소하다/시작하다/일어나다/쳐다보다/취다/읽다/잊어버리다/기다리다 |
| 형용사 | 같다/없다/비싸다/편하다/무섭다/재미있다/반갑다/심하다/힘들다/좋다       |

## 4. 테스트 결과 및 논의

### 4.1 설문 1 결과 분석

<설문 I>의 주된 실험 목적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사용 문법성 테스트(동사 현재/과거, 형용사 현재/과거)중 특히 어느 부분에서 오답 비율이 높은지를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는 각 학년별 전체 학습자에 대한 개별 오답률을 각 품사별 오답 형태와 오류 개수로 제시하였다. 2 학년 학생들의 경우, 각 품사별 학습자 개별 오답 개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동사 현재형을 선택해야 하는 문항에서 전체 학생들의 총 오답 개수는 13 개, 동사 과거형을 선택해야 하는 문항에서 총 오답 개수는 35 개로 평균 오답률은 동사 과거형을 오답한 오류가 25% 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형용사 현재형에 대한 총 오답 개수는 16 개, 형용사 과거형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총 오답 개수는 74 개로 형용사 과거형 오답률이 평균 54%로 더 높게 나타났다.

2 학년 학생들의 품사별 시제 오답 내용을 살펴 보면, 형용사 과거오답(74 개)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동사 과거오답(35 개), 그리고 형용사 현재오답(16 개), 끝으로 동사 현재 오답(13 개)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생별 오답 개수(2 학년)

| 2 학년 학생별 오답 개수(설문 1) |    |     |              |              |               |               |
|----------------------|----|-----|--------------|--------------|---------------|---------------|
|                      | 학년 | 이름  | 동사<br>현재형 오답 | 동사<br>과거형 오답 | 형용사<br>현재형 오답 | 형용사<br>과거형 오답 |
| 1.                   | 2  | 시○○ | 1            | 2            | 0             | 3             |
| 2.                   | 2  | 호○○ | 1            | 2            | 0             | 6             |
| 3.                   | 2  | 퇴○○ | 0            | 2            | 3             | 7             |
| 4.                   | 2  | 임○○ | 1            | 0            | 0             | 2             |
| 5.                   | 2  | 엽○○ | 0            | 2            | 1             | 5             |
| 6.                   | 2  | 채○○ | 1            | 1            | 1             | 5             |
| 7.                   | 2  | 진○○ | 1            | 2            | 0             | 3             |
| 8.                   | 2  | 이○○ | 3            | 2            | 1             | 3             |
| 9.                   | 2  | 장○○ | 1            | 2            | 1             | 5             |
| 10.                  | 2  | 황○○ | 1            | 3            | 0             | 4             |
| 11.                  | 2  | 임○○ | 1            | 2            | 1             | 5             |

|     |   |         |      |     |      |      |
|-----|---|---------|------|-----|------|------|
| 12. | 2 | 유○○     | 1    | 7   | 1    | 4    |
| 13. | 2 | 황○○     | 1    | 2   | 1    | 8    |
| 14. | 2 | 이○○     | 0    | 0   | 0    | 5    |
| 15. | 2 | 임○○     | 0    | 2   | 5    | 4    |
| 16. | 2 | 진○○     | 0    | 0   | 0    | 1    |
| 17. | 2 | 주○○     | 0    | 4   | 1    | 4    |
|     |   | 총오답 개수  | 13   | 35  | 16   | 74   |
|     |   | 평균오답 개수 | 0.76 | 2.0 | 0.94 | 4.35 |

(단위:개)

다음으로 4 학년 학생들의 문법성 테스트 결과이다<표 3>. 2 학년과 마찬가지로 개별 학습자 간의 오답 개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먼저 동사 시제 선택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동사 현재형 오답이 총 9 개, 동사 과거형 오답이 총 27 개로 나타났다. 동사 시제 판단 테스트에서는 현재 보다는 과거 시제 직관에 대한 평균오답(25%)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형용사 시제 테스트 결과에서는 형용사 현재 오답 개수가 총 20 개, 형용사 과거 오답 개수는 총 14 개로 형용사 과거 평균오답률이 52%로 더 높았다.

4 학년 학생들의 시제 오답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형용사 과거 오답(56 개)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사 과거 오답(27 개), 그리고 형용사 현재 오답(16 개), 동사 현재 오답(9 개)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생별 오답 개수(4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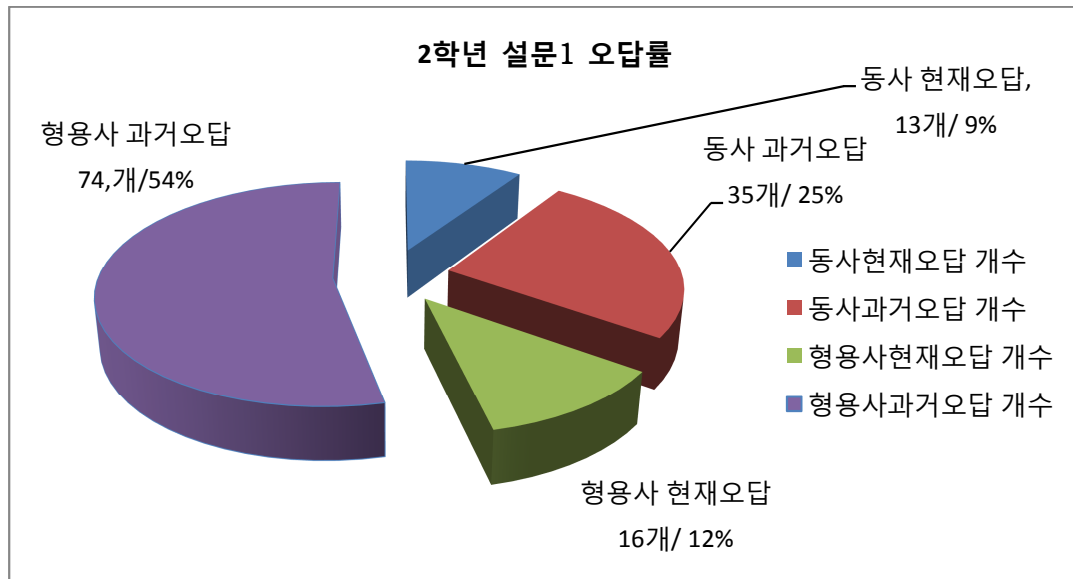
| 4 학년 학생별 오답 통계(설문 1) |    |     |              |              |               |               |
|----------------------|----|-----|--------------|--------------|---------------|---------------|
|                      | 학년 | 이름  | 동사<br>현재형 오답 | 동사<br>과거형 오답 | 형용사<br>현재형 오답 | 형용사<br>과거형 오답 |
| 1.                   | 4  | 최○○ | 1            | 0            | 0             | 4             |
| 2.                   | 4  | 손○○ | 0            | 1            | 1             | 4             |
| 3.                   | 4  | 유○○ | 2            | 4            | 1             | 6             |
| 4.                   | 4  | 사○○ | 1            | 0            | 1             | 1             |
| 5.                   | 4  | 왕○○ | 0            | 2            | 3             | 4             |
| 6.                   | 4  | 주○○ | 0            | 2            | 0             | 6             |
| 7.                   | 4  | 임○○ | 0            | 2            | 0             | 2             |
| 8.                   | 4  | 심○○ | 0            | 2            | 2             | 4             |
| 9.                   | 4  | 옹○○ | 1            | 1            | 1             | 3             |
| 10.                  | 4  | 나○○ | 1            | 2            | 2             | 5             |
| 11.                  | 4  | 황○○ | 0            | 2            | 1             | 4             |
| 12.                  | 4  | 양○  | 0            | 2            | 0             | 3             |
| 13.                  | 4  | 곽○○ | 0            | 1            | 1             | 3             |

|     |   |        |      |      |    |     |
|-----|---|--------|------|------|----|-----|
| 14. | 4 | 장○○    | 3    | 2    | 2  | 0   |
| 15. | 4 | 고○○    | 0    | 2    | 1  | 6   |
| 16. | 4 | 진○○    | 0    | 2    | 0  | 1   |
|     |   | 총오답개수  | 9    | 27   | 16 | 56  |
|     |   | 평균오답개수 | 0.56 | 1.68 | 1  |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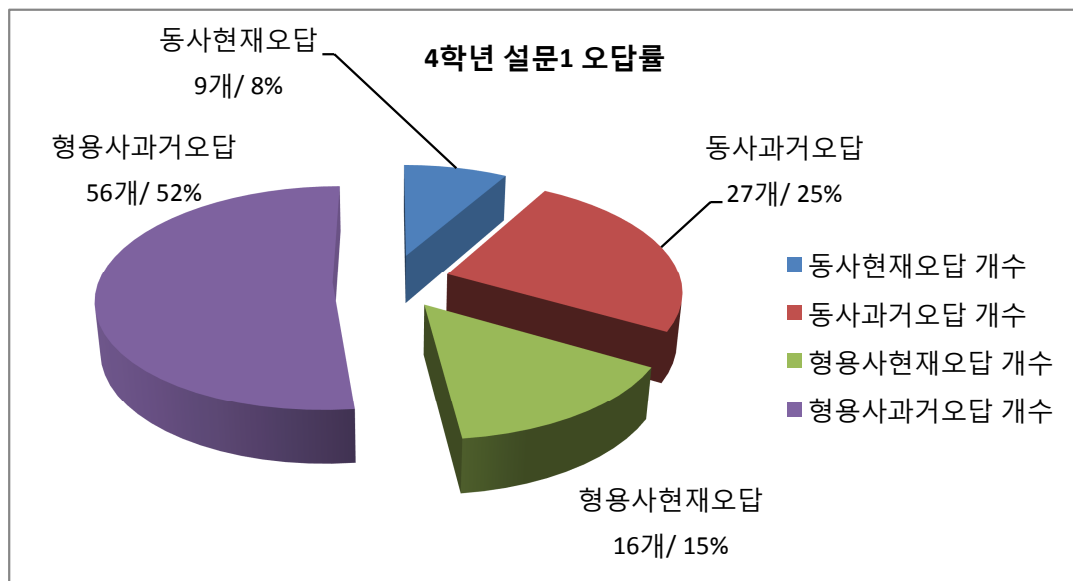
(단위:개)

이에 대한 오답 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그림 2>



다시 말하자면 <설문 1>에서 동사, 형용사에 대한 시제 오답률을 살펴 본 결과 2, 4 학년 모두 동사보다는 형용사 시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형용사 과거 시제 오답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4.2. 설문 2 결과 분석

<설문 2>에서는 학습자에게 형용사 과거 시제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으로 시간어 정보를 제공해 준 후 형용사 시제 사용에 대한 직관에 어떠한 변화가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시간어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오답률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설문 2>는 문항 내용에 한국어 시간어를 추가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설문 1>과 차이가 있다. 자세한 실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2 학년 오답 통계를 살펴보면, 형용사 현재형에 대한 오답이 총 22 개, 형용사 과거형에 대한 오답이 총 19 개로, 형용사 현재오답 개수가 다소 많았다. 4 학년의 경우는 형용사 현재형에 대한 오답이 총 20 개, 형용사 과거형에 대한 오답 개수가 총 14 개로, 역시 형용사 현재 오답개수가 더 많았다. 이는 2, 4 학년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표 4, 표 5 참조).

<표 4> 2 학년 학생별 오답 개수(설문 2)

| 2 학년 학생별 오답 개수 통계(설문 2) |    |     |            |            |
|-------------------------|----|-----|------------|------------|
|                         | 학년 | 이름  | 형용사 현재형 오답 | 형용사 과거형 오답 |
| 1.                      | 2  | 시○○ | 2          | 0          |
| 2.                      | 2  | 호○○ | 1          | 1          |
| 3.                      | 2  | 퇴○○ | 3          | 2          |
| 4.                      | 2  | 임○○ | 1          | 0          |
| 5.                      | 2  | 엽○○ | 1          | 3          |
| 6.                      | 2  | 채○○ | 3          | 1          |
| 7.                      | 2  | 진○○ | 0          | 3          |
| 8.                      | 2  | 이○○ | 0          | 1          |
| 9.                      | 2  | 장○○ | 2          | 5          |
| 10.                     | 2  | 황○○ | 1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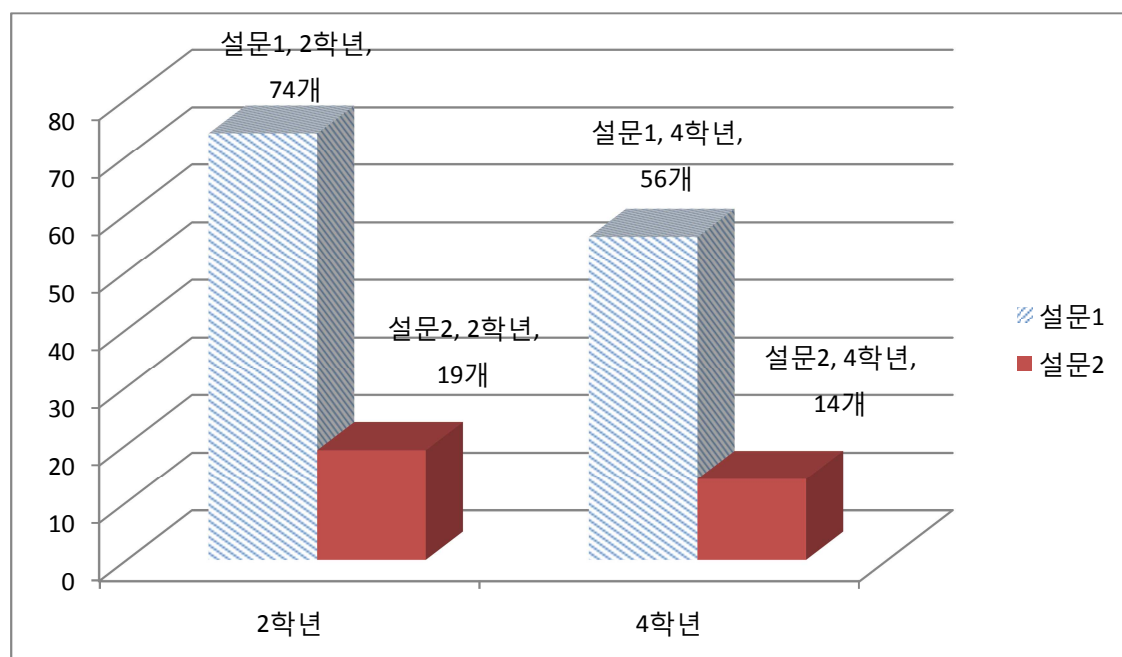
|     |   |        |      |      |
|-----|---|--------|------|------|
| 11. | 2 | 임○○    | 2    | 0    |
| 12. | 2 | 유○○    | 1    | 0    |
| 13. | 2 | 황○○    | 0    | 1    |
| 14. | 2 | 이○○    | 0    | 1    |
| 15. | 2 | 임○○    | 3    | 0    |
| 16. | 2 | 진○○    | 0    | 0    |
| 17. | 2 | 주○○    | 2    | 1    |
|     |   | 총오류개수  | 22   | 19   |
|     |   | 평균오류개수 | 1.29 | 1.11 |

<표 5> 4 학년 학생별 오답 개수(설문 2)

| 4 학년 학생별 오답 개수 통계(설문 2) |    |        |            |            |
|-------------------------|----|--------|------------|------------|
|                         | 학년 | 이름     | 형용사 현재형 오답 | 형용사 과거형 오답 |
| 1.                      | 4  | 최○○    | 1          | 1          |
| 2.                      | 4  | 손○○    | 0          | 1          |
| 3.                      | 4  | 유○○    | 1          | 3          |
| 4.                      | 4  | 사○○    | 1          | 1          |
| 5.                      | 4  | 왕○○    | 3          | 0          |
| 6.                      | 4  | 주○○    | 0          | 1          |
| 7.                      | 4  | 임○○    | 0          | 0          |
| 8.                      | 4  | 심○○    | 1          | 1          |
| 9.                      | 4  | 옹○○    | 1          | 0          |
| 10.                     | 4  | 나○○    | 1          | 2          |
| 11.                     | 4  | 황○○    | 2          | 0          |
| 12.                     | 4  | 양○     | 0          | 0          |
| 13.                     | 4  | 곽○○    | 2          | 0          |
| 14.                     | 4  | 장○○    | 6          | 0          |
| 15.                     | 4  | 고○○    | 1          | 3          |
| 16.                     | 4  | 진○○    | 0          | 1          |
|                         |    | 총오류개수  | 20         | 14         |
|                         |    | 평균오류개수 | 1.25       | 0.875      |

결과적으로 <설문 2>에서 한국어 시간어를 전혀 제시해 주지 않고 학생들의 형용사 과거시제 사용에 대한 직관을 살펴본 결과, 오답 개수가 74 개(2 학년)와 56 개(4 학년)로 나타났으나, 시간어를 제시해 주자 형용사 과거오답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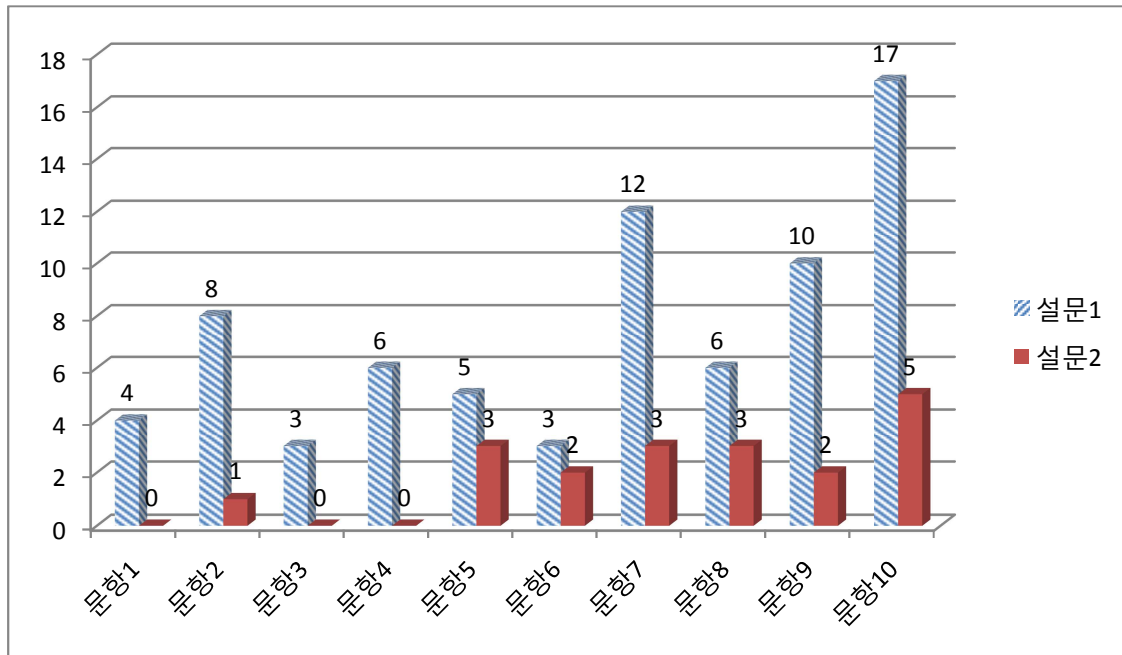
<그림 3> 2, 4 학년 설문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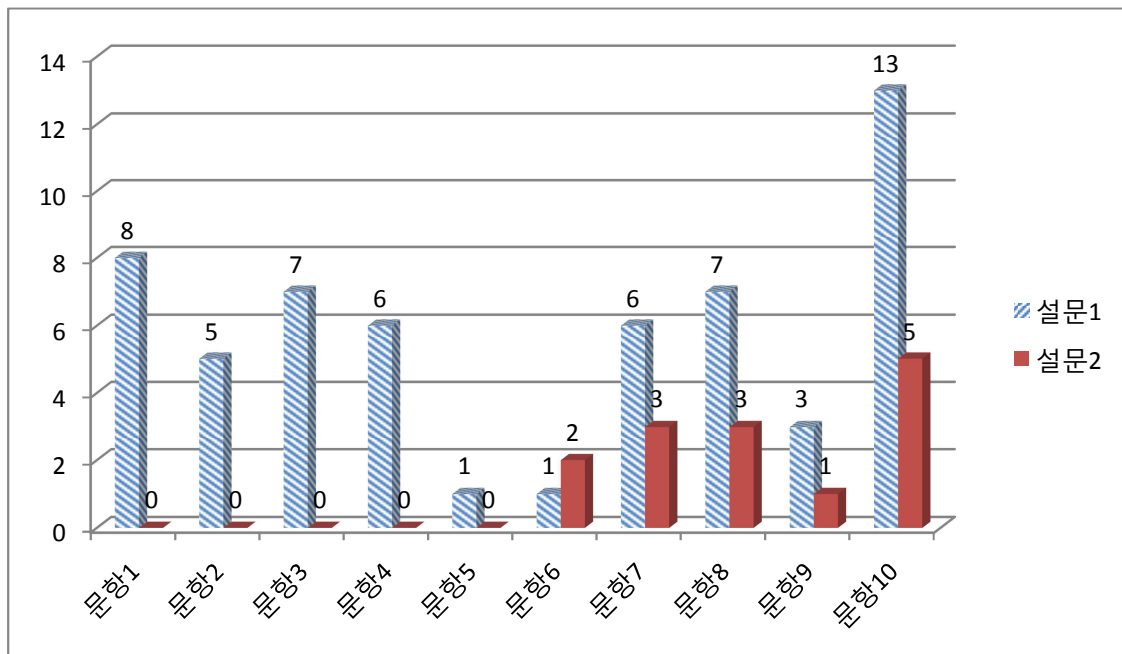
#### 4.3. 형용사 과거 시제 오답 양상 분석

앞서 밝힌 것처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형용사 과거시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기능으로 시간어를 첨가하면 오답률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문항별 오답 통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4> 2학년 문항별 오답률 통계



<그림 5> 4학년 문항별 오답률 통계



위의 <그림 4>, <그림 5>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설문 1 과, 설문 2 의 결과를 보면 1~10 번 문항 중 일부 문항에서는 시간어 첨가 유무에 따른 오답률의 감소가 거의 제로에 달하는 등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 것도 있으나 문항<7>, <8>, <10>처럼 시간어 제시 유무에 상관없이 일부 학습자는 여전히 오답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문항별로 학습자가 일으키는 오류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각 문항별로 상세히 살펴 본다. 이는 아래의 <표 6>을 참조한다.

<표 6> 한국어 문법에서의 시제 정의와 학습자 오류 양상

|       |                                                                  | 현재시제                                                                    | 과거시제                                                                       |
|-------|------------------------------------------------------------------|-------------------------------------------------------------------------|----------------------------------------------------------------------------|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뜻풀이 <sup>8</sup>                                  | 현재시제는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 과거시제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말한다                     |
| 답화 맥락 |                                                                  | 오류 유형                                                                   |                                                                            |
|       |                                                                  | 오답                                                                      | 정답                                                                         |
| 1.    | 가: 면접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마음에 들어요?                                      | 나: 사진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_____. 그런데 직접 만나 보니까 별로네요. ①같아요(36%)                 | 나: 사진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_____. 그런데 직접 만나 보니까 별로네요.<br>√ ②같았어요 (64%)             |
| 2.    | 가: 교통사고 현장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 나: 네, 서로 구해 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정신이 _____.<br>①없어요 (39%)                       | 나: 네, 서로 구해 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정신이 _____.<br>√ ②없었어요 (61%)                       |
| 3.    | 가: 언니, 그 가방은 정말 예쁜데 왜 이제야 샀어요?                                   | 나: 그치, 정말 예쁘지? 사실 계속 사고 싶었는데 너무 _____. 지금 세일 중이니까 너도 빨리 사.<br>①비싸 (30%) | 나: 그치, 정말 예쁘지? 사실 계속 사고 싶었는데 너무 _____. 지금 세일 중이니까 너도 빨리 사.<br>√ ②비쌌어 (70%) |
| 4.    | 가: 그 산은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요?                      | 나: 아, 다른 날보다 날씨도 좋고, 산길도 너무 예뻐 걸어가기가 _____.<br>① 편해 (36%)               | 나: 아, 다른 날보다 날씨도 좋고, 산길도 너무 예뻐. 걸어가기가 _____.<br>√ ②편했어(61%)                |
| 5.    | 가: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철수 씨는 괜찮아 보이네요.                         | 나: 괜찮긴요. 마침 혼자 집에 있어서 정말 _____.<br>①무서워요 (18%)                          | 나: 괜찮긴요. 마침 혼자 집에 있어서 정말 _____.<br>√ ②무서웠어요 (82%)                          |
| 6.    | 가: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화가 끝나도 사람들이 재미있어했어요. 정말 이해 안 돼요. | 나: 그래요? 저는 그 영화에 대해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럭저럭 _____.<br>①재미있어요 (12%)         | 나: 그래요? 저는 그 영화에 대해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럭저럭 _____.<br>√ ②재미있었어요(88%)          |
| 7.    | 가: 좀처럼 웃지 않는 분이 이렇게 웃고. 웬                                        | 나: 10년 전의 고향 친구를 만나서 너무 _____.<br>무 _____.                              | 나: 10년 전의 고향 친구를 만나서 너무 _____.<br>무 _____.                                 |

<sup>8</sup> 자료 출처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                                                      |                                                                                     |                                                                                       |
|-----|------------------------------------------------------|-------------------------------------------------------------------------------------|---------------------------------------------------------------------------------------|
|     | 일이에요?                                                | ①반가워요 (54%)                                                                         | √ ②반가웠어요(46%)                                                                         |
| 8.  | 가: 오빠, 그 초콜릿 비싼 건데 맛이 특별해? 나는 아직 못 먹어 봐서 그러는데 맛이 어때? | 나: 말도 하지 마. 포장을 뜯어 보니까 냄새가 너무 _____. 그래서 바로 버렸어. 그런 초콜릿은 지금까지 정말 처음이야.<br>①싫해 (39%) | 나: 말도 하지 마. 포장을 뜯어 보니까 냄새가 너무 _____. 그래서 바로 버렸어. 그런 초콜릿은 지금까지 정말 처음이야.<br>√ ②싫했어(61%) |
| 9.  | 가: 왜 그래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 나: 다른 게 아니라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화장실 참느라고 너무 _____. 그래도 빨리 도착해서 다행이에요.<br>①힘들어요(39%)         | 나: 다른 게 아니라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화장실 참느라고 너무 _____. 그래도 빨리 도착해서 다행이에요.<br>√ ②힘들었어요(61%)        |
| 10. | 가: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도 웃음이 나와요?                     | 나: 네. 저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_____.<br>①좋아요 (90%)                           | 나: 네. 저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_____.<br>√ ②좋았어요(10%)                           |

<우선 문항 1>의 경우이다. 담화맥락에 “면접했다고 들었다”는 과거 시제 표지가 청자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화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주 요지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요?”라는 현재 사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청자는 그 현재 상태에만 주목하여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시제 사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담화맥락에 제시된 과거 시제 유무와 별개로 질문의 요점이 화자의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자는 이러한 현재 사실 관계에만 집중하여 생긴 오류 양상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문항 7, 8, 9, 10>의 경우도 유사한 오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문항 2, 9>의 경우는, 담화 맥락에서 어떠한 시제 관련 표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자가 질문한 “그렇게 심각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라는 현재 시점의 발화 표지에 근거하여 청자는 당연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는 바람에’ 나 ‘-느라고’의 문법적 요지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는 이와 상관 없이 과거 시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는 단순히 현재 시점을 묻는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문항 3>의 경우는 담화맥락에 제시된 시제 관련 표지 중 질문의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미 과거 시제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자의 경우 그 사실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오답률을 보인 이유로는 중국어의 형용사는 과거 시제가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모국어의 특성상 학습자는 과거, 현재의 느낌 모두 현재형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데, 이에 기인한 오류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시에 집중한 결과 과거시제 사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항 4, 5, 6>의 경우는 서로 유사한 오류 유형으로 담화 맥락에 이미 과거 시제 관련 표지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자의 대답 중 발화시의 주어에 대한 서술 형태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는 그에 해당되는 상태 표현이 어느 시점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 생긴 과잉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 5 번과 6 번은 오답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인과 관계에 의한 문법적 의미 요소를 학습자가 잘 숙지하고 있거나 해당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형용사 과거 시제 사용이 용이했을 것이라 유추된다.

다음으로 <문항 7, 8, 9, 10>의 경우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느낌은 과거 시제 어미 ‘-었-’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시제로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발화시와 사건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문자의 문맥적 맥락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시제를 결정하는 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항에서 화자의 질문에 제시된 시제와 청자의 입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시제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제의 차이점을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화자의 입장에서 쓰인 시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대답한 오류로 역시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 과정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작 자체는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자체는 발화시점 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과거시제이다. 그러므로 모두 ‘-았/었/였’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사건에 대한 느낌이나 상태에 대한 표현에서 과거 시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 과거 시제 습득의 어려움이라고 보여진다. 이 뿐만 아니라, <문항 7, 8, 9, 10>의 대화 내용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아서’ 나 ‘-니까’ 그리고 ‘-느라고’, ‘-는 것을 보고’와 같은 문법적 구성이 학습자에게 현재 시제로 오인하게 하여 생긴 오류라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구어체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어체에도 영향을 미쳐 손쉽게 현재형을 사용하여 일으킨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설사 시간어를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일부 학습자는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시제 사용에 대한 직관을 살피고자 동사와 형용사 시제(선어말어미) 사용에 대한 문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권 학습자는 형용사 과거 시제에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형용사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직관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방안으로 ‘시간어’첨가를 제안하였으며, 실제 테스트를 통해 한국어 시간어 정보 제공이 학습자의 오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시제 사용에 있어서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용사 시제 표현 중에서도 과거형 시제 표현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고에서 제안한 한국어 시간어 제시는 학습자로 하여금 형용사 과거 시제에 대한 직관력을 일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시제 체계를 갖고 있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올바른 형용사 시제 사용을 위해서는 시간어의 개념을 도입하여 형용사 과거시제에 대한 의미적, 형태적 특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형용사 과거 시제를 교육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형용사 과거 시제를 교수할 때, 한국어 시간어 추가 제시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체계 중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시제 표현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학습자가 중간언어 오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극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문장을 발췌하여 다시 수정해 보게 하거나, 형용사 과거시제가 많이 사용된 다양한 장르 및 담화 맥락의 텍스트를 주고 그 가운데 시제를 구분해 보도록 하는 과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한 시간어 제시와 같은 방법의 연장선상에서 학습자에게

문장 내에 적절한 시간어를 제시해 보도록 하여 한국어 형용사 과거 시제에 대한 직관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화 맥락에 시간어 표지 관련 여부가 학습자의 한국어 형용사 과거 시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시간어 관련한 담화 표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과거 시제 습득 교육 방안으로 시간어 관련 표지 외에도 다른 문법적인 수단 및 학습자 개인의 특성,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 체계에서 비롯된 차이점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03), 「대조분석론」, 도서출판 역락.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김상태(2005), 「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연구」, 학고방.
- 김석득(1974), 「한국어 시간과 시상」 한불연구 1. 연세대 한불문화연구소.
- 김재옥(2005),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형태의 용법별 중간언어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32집, 언어과학회, 89-108쪽
- 김진우(2002), 「제2어 습득연구」, 한국문화사.
- 김홍실(2008), 「한국어의 ‘-었-’ 과 중국어의 ‘了’ 의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제38호, 이중언어학회, 123-147쪽.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1」,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1998),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박덕유(2009), 「학교 문법론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박선희(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시제 습득 연구」, 한국어교육 20-3, p.79-110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쪽
- 송경안(2008), 「시제와 상의 유형론」, 언어유형론 3, 송경안 외, 월인, 9-54 쪽.
- 송화연(2002), 「현대 중국어 시제 구조와 의미」, 『중국학논총』 14.
- 왕 방(2007),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 상지대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2008), 「한국어 형용사의 시간구조 연구」, 『배달말』 43.
- 이해영(2003),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항목 발달패턴 연구」, 이중언어학, 제22호, 이중언어학회, 271-300쪽.
- 이해영(2005),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항목 발달패턴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지혜(2010), 「국어와 중국어 시간표현 대비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제몽요(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과거시제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최동주(1998), 「시제와 상」, 문법 연구와 자료, 서태룡 외, 태학사, 227-260쪽.
- 최선희(2011),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시제이해 연구: 시간부사어 아까, 지금, 이따가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허 용(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대조언어학과 보편문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36호, 이중언어학회, 1-24쪽.
- 호선희(2012), 「중국인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시제표현 교육 연구 :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홍종선(1987), ‘국어 시제의 발달’ , 어문논집 27호, 고려대.
- 홍종선(1989), ‘시간과 시제’ , 「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논문총」, 탑출판사.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2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黎錦熙(1924).‘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 高名凱(1986),‘漢語語法論’, 上海開明書店.
- 陳俊光(2008),‘對比分析與教學應用’, 文鶴出版有限公司.
- Bardovi-Harlig, K. & Reynolds, D. (1995). The Role of Lexical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ense and aspect, *TESOL Quarterly* 29, 1: 107-131
- Bardovi-Harlig, K. (1998). Narrative structure and lexical aspect: Conspiring fa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tense-aspect morpholog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0: 471-508.
- Collins, L.(2002). The role of L1 influence and lexical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emporal morphology. *Language Learning*. 52,1: 43-94
- Comrie, Bernard.(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Nick C. (2008). The dynamics of language use, language change, and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rn Language Journal* 41-3: 232-249.
- Sun, X. & Du, J. (2009). A cross-linguistic study on temporal acquisition: New evidence for L1 influence lexical aspect effect. *Teaching English in China: CELEA Journal* 32,1: 117-126쪽.
- White, L. (1987). Against comprehensible input: The input hypothesis and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competence. *Applied Linguistics* 8-2: 95-110쪽.
- Wong, W. (2007). Input Enhancement : From theory and research to the classroom, McGraw Hill. 서종학 외 역(2012), 입력강화 : 이론 연구에서 교실 까지, 한국문화사.

致謝

本研究由科技部計畫 MOST 104-2410-H-390-037 補助支持,, 特此致謝。